



기묘한 상상력을 만나다 르네 마그리트展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초현실주의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展은 이미지의 신비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자리다. 르네 마그리트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도 일단 그의 대표작들과 마주하면 최소한 한두 점은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광고나 엽서, 캘린더, 건설 현장의 가림막 등 마그리트의 작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인기리에 복제되어 온 이미지가 마그리트의 그림이다.

- ① ②
- ③ ④ ⑤ ⑥

- ① <강에 사는 사람들 The Denizens of the River>, 캔버스에 유채, 73x100cm, 1926
- ② <기억 Memory>, 종이에 과슈, 46.5x37cm, 1948
- ③ <보물섬 Treasure Island>, 캔버스에 오일, 60x81cm, 1942~43
- ④ <검은 마술 Black Magic>, 캔버스에 오일, 80x60cm, 1945
- ⑤ <신뢰 Good Faith>, 캔버스에 오일, 41x33cm, 1964~65
- ⑥ <골콘드 Golconde>, 화판 위에 과슈, 15.8x18.4cm, 1953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유년의 기억

마그리트는 1898년 11월 21일, 여행사에 근무하던 아버지와 양복점을 운영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다. 그러던 와중에 14살 때 어머니가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의 주검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잠옷으로 얼굴을 휘감은 상태였다. 어린 마그리트는 헤아리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으나 갑자기 동정과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묘한 충족감 같은 것을 느꼈다. 커다란 상실감과 충족감의 공존은 그로 하여금 세계의 부조리와 이율배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몇 가

지 사건도 그의 예술 행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유아 시절 그는 요람 옆에 매우 커다란 껌 조각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생경하고 기이한 느낌을 받았는데, 사물을 사물이 아니라 사람 같은 존재로 느낀 그런 경험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집 지붕 위로 커다란 계류기구가 떨어졌다. 지붕에서 끌어내린 기구와, 헬멧과 가죽옷을 착용한 조종사의 모습에서 그는 마치 외계인을 본 듯한 낯선 체험을 했다.

그의 뇌리에 깊이 박힌 세 번째 사건은 8살 때 여자 친구와 함께 버려진 공동묘지에서 놀던 기억이다. 그는 여자 친구와 공동묘지를 즐겨 찾았는데, 공동묘지 안의 철 계단을 딛고 지하 납골당이 있는 데로 내려가면 금세 세상은 조용해지고 어두컴컴해졌다. 어느 날 그 어둠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니 묘지 건너편에 멀리서 온 듯한 화가 한 사람이 묘지 쪽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삶이 아니라 죽음, 곧 ‘삶의 건너편’을 그리는 그 화가를 본 순간 어린 마그리트는 마치 다른 차원의 이미지와 조우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예언이었을까. 그는 훗날 ‘삶의 건너편’, 곧 초현실주의의 세계를 그리는 화가가 됐다.

해석 불가능한 판타지의 장

위의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 마그리트는 천성적으로 낯설고 신비한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그가 세상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미스터리에 집요한 관심을 갖고 이를 형상화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는 말했다.

“미스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미스터리가 아니다. 나의 그림은 미스터리에 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그림은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수께끼를 풀듯 그의 그림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해석 불능의 미스터리를 그렸으니 미스터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림을 해석하려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해석 못 한 것을 해석해 낸 걸 보니)당신은 나보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그의 그림 속 이미지를 “이건 무얼 뜻하는 것일까?”하며 따져 볼 필요가 없다. 그저 그 낯설고 신기한 조형을 즐기면 하면 된다. 어차피 세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지만 “말이 안 되게 사물을 조합하는” 그의 조형 기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호기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미술사에서는 초현실주의 미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법이니까 말이다. 그의 조형 기법은 기본적으로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라고 불린다. 이는 어떤 대상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대상끼리 혹은 대상과 환경 사이에 기이한 만남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로트레아몽의 시 구절 가운데 “재봉틀과 우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이 기법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마그리트는 이처럼 서로 만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나게 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묘한 판타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한다.

가려진 세계를 들추는 그의 작품들

<강에 사는 사람들>을 보자. 강을 배경으로 얼굴이 없고 목만 있는 사람 두 명이 그려져 있다. 한 사람의 목은 다리를 연상시키고 다른 한 사람의 목은 금속성 원기둥을 생각나게 한다. 둘 다 기다란 원통형이라는 점에서 목의 이미지와 아주 멀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낯설과 낯익음의 기이한 교차를 본다. 가림막만 손이 닿지 않아 굽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미묘한 자극이 있는 그림이다.

<철학적 등불>에서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코가 긴 사내와 뱀처럼 몸체가 긴 촛불을 본다.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몸체 혹은 신체의 일부가 길고 흐늘흐늘하다는 점에서 닮았다. 또 자신을 태운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초가 스스로를 태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담배를 피우는 이도 결국 연초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점에서 둘은 상통한다. 그렇게 전혀 닮지 않았으면서 닮았다.

<검은 마술>에서는 여인의 상체가 하늘을 닮아 푸른색을 띠고 하체는 본디 인간의 몸 색채를 드러내 보인다. 피그말리온의 조각처럼 돌이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하늘로 변해가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변화는 승화의 성질을 암시한다. 그런가 하면 <기억>은 어두운 과거와 관련이 있다. 고대의 조각을 생각나게 하는 석고상은 우리 정신의 고고학을 떠올리게 한다. 피는 옛 상흔을 연상시킨다. 석고상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것이 내 과거의 고고학적 상처, 그러니까 나의 가장 깊고 아픈 내상이라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마그리트는 이처럼 우리가 이성과 의식의 지배를 받느라 매번 간과하고 지나치는 숨겨진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계의 본질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한 미스터리다.

글 | 이주현(미술평론가)